

단편소설

## 벽장 밖은 어디로

유재연

달리는 고속버스에 앉아 나는 시진에 대해 생각했다. 창문에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지만 뒤지 않았다. 나는 지리산에 있는 선원으로 가는 중이었다. 한 달 동안 짙게 간다고 말하자 헛집 사장은 왜냐고 물었다. 비구니가 뭘까 고민해 보렵니다, 라고 둘러대자 사장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종교가 없었다. 선원에 가는 것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민희가 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민희는 취직할 때까지 선원에서 일 년 넘게 요양 중이다. 나는 민희의 얼굴이 보고 싶었고 시진 교의 추억이 많은 포항이 지긋지긋하기도 했다.

시진과 만난 삼 년은 건조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나 새해에 케이크 하나 사지 않았고, 커플링도 맞추지 않았다. 시진과 나는 함께 살았지만 밥을 먹을 때 외에는 각자의 방에 머물렀다. 시진은 우리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서로 각자의 구멍이에 있다가, 가끔 밖으로 나와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있구나, 하고 힘을 얻고 다시 자기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난 그런 관계가 이상적이라고 봐.”

시진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국어 강사였고, 나는 헛집에서 흡사빙을 했다. 시진은 고등학생들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면서도 ‘냉정하지만 속으로는 학생을 아끼는 유능한 선생님’이란 이미지를 만들 줄 알았고, 나 역시 틈을 얻어내기 위해 손님들에게 호의를 가장할 줄 알았다. 시진은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의 우리의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겼다.

“우리의 핵은 구멍이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 일은 구멍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각자의 방에서 시진과 나는 글을 썼다. 우리는 인터넷 소설 교실에서 만났다.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줌으로 듣는 수업이었다. 줌 수업을 처음 해본다는 소설가는 인턴넷이 자주 끊기고 질량이 보이지 않는 등 실수를 거듭해서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수업이 거듭되자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소설가의 수업을 일 년 넘게 들었다. 시진도 비슷한 기간 동안 수업을 들었다. 모니터 너머의 시진은 머리칼이 길고 얼굴과 팔의 선이 아름다웠다. 소설 보는 눈이 밝았고 냉정한 비판도 따스한 조언처럼 들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시진의 문장은 매력적이었고 주로 쿼이 소설을 썼다. 소설 속 주인공들의 말과 행동의 움직임이 미미해서 나는 처음엔 여자들의 미묘한 우정을 다루는 소설인 줄 알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뜨겁고 괴로운, 열정이나 집착이라고 부를만한 감정이 그 안에 녹아있었다. 나는 시진의 모든 소설에 열렬한 추종을 보냈고 반 년 후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사이가 되었다. 신춘문예에 모두 떨어진 이는 1월, 나는 대구에서 고속도로를 오십 분 동안 달려 시진이 사는 포항으로 갔다. 그때 나는 마흔여섯, 시진은 서른여섯이었다. 우리는 일본식 꼬치구이 집에서 사계를 마셨고 그 날 밤 나는 시진의 집에서 잤다. 한집에서 잤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 훗날 시진은 내가 선잠을 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왜냐면 시진 역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떨림을 들릴까봐 쉽게 잠들지 못했으므로. 그날 이후로 시진은 미니 쿠퍼를 몰고 대구로 찾아오곤 했고, 나는 그보다 두 배 정도 더 자주 내 모닝을 타고 포항으로 갔다. 그해 여름 우리는 포항에서 방 두 개에 거실 하나의 빌라를 전세로 얻어 같이 살기 시작했다. 시진은 포항에서 임지를 다진 학원 강사였고 포항에는 헛집이 많으니 내가 이사를 가는 게 당연했다. 전세금은 반반씩 부담했다.

우리가 만난 지 삼 년 반 만에, 그러니까 내가 마흔이후에 된 해의 여름에, 시진은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어 등단과 동시에 책을 냈다. 나는 그전에 낸 신춘문예에 떨어지고, 봄에 낸 문예지 공모에서도 낙방한 상태였다. 나는 애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으나 내 진심의 한 귀퉁이가 일렁거렸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진심의 뒤를튼 틈새로 축축하고 끈적한 열매감이 흘러나왔다. 시진이 등단한 작가들과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지만 입가가 미묘하게 떨렸다. 경복을 기반으로 하는 신진 작가 대어섯 명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등단과 동시에 책이 나온 시진은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했다. 시진은 k라는 작가에 대해 자주 말했다. k는 대구 출신에 시진보다 두 살 어리고 더 유명했다. 한 번은 k의 북콘서트에 초대받아 간 적도 있었다.

“k가 아야, 하고 입 안에서 땀을 꺼내더니 이가 빠졌다고 해서 청중이 다들 놀랐는데, 알고 보니 강냉이였어.”

북콘서트 다음날 아침, 샌드위치에 커피를 마시며 시진은 정말로 즐겁다는 듯 웃었다. 나는 재밌는 사람이네, 라고 맞장구쳤다.

“작가가 그렇게 스스럼없이 구니까 콘서트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 겉보기엔 세련되고 새침해 보인데, 알고 보면 장난기 넘치는 허당이야.”

내가 이미 k작가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고, 그녀가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란 걸 알고 있다

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k씨랑 k씨 애인이랑 불러서 언제 커플끼리 식사라도 할까?”

시진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애인이 이십 대일걸? 우리랑 너무 나이 차이 나서 재밌으려나.”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둘이 요즘 사이도 좀 그렇고.”

“그런 얘기도 해?”

“응. 우리 별 얘기 다 해. 베프야.”

언제 베프가 되었을까. 그리고 보니 시진이 밥을 먹으면서도 카톡을 들여다보며 피식거리는 일이 늘었다. 방 안에서 소곤대며 전화 통화를 함할 때도 있었다.

“k랑 관련된 재밌는 일 생기면 나한테도 얘기해 줘.”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을까. 가볍게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고 보니 무겁고 음침하게 들렸다. 시진은 물끄러미 나를 바라봤다. k와 나를 저울에 달아 놓고 비교하는 것처럼, k는 숫자가 어울리는 보이시하고 예쁘장한 여자였다. 내 옆의 시진보다 k옆의 시진이 더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시진을 처음 만날 무렵 나는 사십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말을 들은 했다. 선이 되자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제 나이로 보기 시작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얼굴선이 탄력을 잃은 고무줄 바지처럼 흘러내린 탓이었다. 반면에 나보다 열 살 어린 시진은 여전히 삼십대 초반으로 보였다. 시간이 무섭구나. 나는 앞으로 십 년 후엔 예순. 할머니로 불려도 좋을 나이였다. 열 살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나는 시진에게 너무 늙은 건가.

“k의 사생활이니까, 글세.”

시진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직은 유명 작가도 아니잖아. 책 한 권 내게 전 부장야?”

나는 웃으며 말했는데 시진의 입꼬리는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나름 이름을 알고 있어. 문장이 되게 매력적이고 재치 있어서, 팬층이 더 두꺼워질 거야.”

그러니, 하고 나는 말했다. 일어나서 점心和 머그잔을 개수대에 갖다 놓는데 걸음이 무거웠다. 방바닥을 타르처럼 검은 액체로 끈적거렸다. 열매감이 맨발에 잔뜩잔뜩하게 들러붙었다.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말로 헤어졌지만,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닌 걸 서로 잘 알았다. 시진은 나와 헤어진 후 미련 없이 집을 싸서 대구로 떠났다. 한 달 후 커플링을 낀 두 개의 손이 겹쳐진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올렸다. 아마도 k의 손일 그 손은 희고 가늘고 섬세해 보였다. 나는 내 손을 들여다보며 참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크고, 마디가 두껍고, 까무잡잡하고 거친 손. 앞으로 시진의 프사를 볼 때마다 나를 얼마나 미워하게 될까 생각하다가 나는 시진을 카톡에서 삭제했다. 이제 죽을 때까지 너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리라는 절망감이 들었다.

두 시간 반을 달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함양 시외버스 터미널은 시골 초등학교 규모의 이층 건물이었다. 터미널 안에 붙어 있는 산삼 엑스포 현수막에는 눈이 크고 팔다리가 달린 산삼 캐릭터가 실제적으로 묘사된 작은 산삼을 손에 들고 있었다.

“저 산삼 캐릭터는 산삼을 먹으려는 건가.”

대합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판 데를 바라보고 있던 민희에게 나는 인사 대신 농담을 건넸다. 일 년 넘게 만나지 못했지만 유난스럽게 굳고 싶지 않았다.

“은경이 왔구나. 산삼은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냐?”

민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캐릭터가 눈에 광기가 돌고 팔다리 움직임이 지나치게 활발한 게, 산삼을 아침저녁으로 먹는 것 같은데?”

“넌 여전히구나. 내 차로 가져.”

민희가 은은하게 웃었다. 민희 앞에서는 나도 장난스럽고 재치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민희는 갈색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 숨이 누벼진 회색 점퍼에 남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눈 밑이 팽하고 광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서 병세가 완연했다.

“넌 딱 절에서 온 사람 같아.”

“지난번엔 시장에 갔더니 나한테 합장하는 아주머니도 있더라. 영결예나도 따라서 합장했어. 그 아주머니가 스님 어디 아프세요, 하고 사과를 몇 알 주는데 그냥 받았지 뭐야.”

민희와 나는 훗웃 웃었다. 이미 단종된 민희의 은색 소형차를 타고 선원으로 가는 길에 민희는 선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줬다. 선원은 폐업한 사층짜리 유스호텔을 개조한 곳이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가 달려 있고, 두 명이 한방을 쓴다. 지금 머무는 사람은 총 육십 명 정도. 스님이 스무 명이고 나머지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병이 든 사람들이야. 암 환자, 신장 투석 하는 사람, 정신질환자. 병자는 딱히 할 일이 없



시진=김25 ▲홍익대·동 대학원 서양화 전공 ▲뉴욕 KIPS&MIZMA 개인전, 금산갤러리, 오사카 시립미술관, 은암미술관 개인전 ▲KIAF, Art Miami, Art Dubai, Scope Basel 등에 출품.

잡아? 고통이란 족쇄에 묶여 노예처럼 끌려가잖아. 그런데 이곳에선 병을 수단으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고통이 인간을 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성함으로 나아가는 조건이 되는 거야.”

민희의 말은 그녀가 평소 쓰는 어휘를 능가했다. 누군가에게, 아마도 민희가 깊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들은 말 같았다. 그럴싸했지만 외왈지는 않았다.

“그게 가능할까? 아프면 시야가 좁아지지 않나. 자기 몸에만 관심을 갖고.”

민희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었다.

“가능해. 이곳엔 원장 스님이 있어.”

“훌륭한 스님이시어?”

“만나면 알게 될 거야. 티벳 스님인데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야.”

원장 스님을 만난 것은 선원 앞이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다. 풍채가 컸고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길렀다. 그는 외국인 티가 나는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새로 온 사람? 반갑습니다.” 하고 차에서 내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목구비가 큼직하고 피부가 반들거렸는데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마흔 살 같기도 했고 예순 살 같기도 했다. 민희도 나이를 모른다며 “원장 스님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로선 알 수가 없어.”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민희의 말에 위화감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마 내가 민희를 처음 만난 곳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비 종교 마을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평생과 신비주의는 내게 익숙했다. 나의 외할머니는 ‘생명마을’이란 곳에서 살았는데 엄마와 나는 여름방학마다 외할머니를 보러갔다. 그곳에선 집마다 교주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신도들은 사진 앞에서 기도를 했다. 외할머니는 초등학생인 내게 “교주님은 종종 해질녘에 산책하시 하늘을 날아다니신단다, 내가 봤단다.”라고 속삭였다. 민희는 그곳에서 유일한 내 또래였다.

“기억나? 어두운 벽장 속에 들어 들어갔던 거잖아.”

선원에서 보내는 첫 밤, 불을 끈 방에 나란히 누워 내가 왜 벽장 이야기를 꺼냈을까. 민희와 알고 지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선원의 어머니가 그때 그 벽장 속 어둠을 연상시켰던 것일까. 나는 민희가 존자같은 꽃무늬가 있는 두터운 솜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이 고풍스런 이불의 무게가 과거를 떠올리게 한 걸지도 몰랐다. 민희는 두껍지 않은 가을 이불을 덮고 있었다.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온몸이 저리다고 했다.

“그러게. 답지 않았나?”

민희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이상하게 그 벽장 안을 떠올리면, 한여름인데도 서늘했다는 기분이 들어.”

“자작나무 숲이라고 불렀잖아, 벽장 안을. 나는 앤이고, 너는 다이애나라고 했지. 왜 그런 곳에 틀어박혀 있었나?”

민희는 푹푹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빨간머리 앤’은 우리가 둘 다 읽은 책이었고, 민희는 이 책을 유난히 좋아했다. 나는 콧잔등에 주근깨가 나있고 머리칼이 갈색인 민희에게 ‘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학교에서도 앤이라고 불리니까 내가

물자, 어린 민희는 대답했다. 아니, 내 별명은 사이비야. 그 말에 나는 바로 알았다. 사이비 종교에 소속된 배경이나 우물쭈물하고 눈치를 보는 태도 때문에 민희의 예쁜 얼굴은 호감을 얻지 못하고 시기와 조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걸. 남자애들도 다른 여자애들에게 동조해 끌림을 괴롭힘이라는 형태로 표출할 것이다. 나는 계산적이었다. 언젠가 민희가 예쁘고 착하다는 걸 모두가 알아보는 날이 올 것이지만 그전까지 민희가 나만의 것이길 바랐다. 나는 벽장을 연과 다이애나가 우정을 쌓는 장소였던 ‘자작나무숲’이라고 이름 붙였고 앤과 다이애나는 그곳에서 놀아야 한다고 민희를 설득했다. 나는 벽장 속의 어둠을 좋아했다. 문짝 틈새로 들어온 빛을 따라 춤을 추는 주근깨 같은 먼지들,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민희의 부드러운 살, 머리카락 냄새, 어렴풋한 실루엣... 아직 성애를 알지 못한 내게 그 어둠은 민희와 융화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니 내가 벽장에 틀어박히길 원했던 이유를 민희에게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수현이는 어때?”

나는 민희의 아들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늘 똑같지. 뭐, 수현이빠가 잘 돌봐줄 거야.”

민희의 아들은 자폐아였고 이혼 후엔 전남편이 돌보고 있었다. 민희는 피곤한지 빨리 자자고 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한참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다 선원에 도착하고 나서 한 번도 시진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민희가 열게 코를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선원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유방암에 걸린 육십 대로 보이는 여자가 둘이 어떻게 친해졌냐고 물었다. 일출에 있는 식당은 고등학교 구내식당 같은 구조였다. 스무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이 네 줄 늘어서 있고, 근처에 앉은 사람끼리 가볍게 잡담을 나눴다.

“은경이가 서울에서 온 세련된 아이라서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제가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세 통에 한 통 꼴로 답장이 왔어요.”

민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민희가 보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답장을 썼다가 찢어버리곤 했다.

“서울이라지만 변두리에 살았고, 집도 가난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린 시절 나는 민희가 나를 보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집은 짜증과 동정의 대상이었다. 아버지가 밤새 고함을 지르거나 뒤통을 부수면 동네 사람 중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민희에게 나는 상냥하고 우아한 다이애나였다.

“음식은 입에 맞아요?”

유방암에 걸린 여자 옆에 앉은 신장 투석을 하는 남자가 물었다. 그들의 병은 나중에 민희에게 들어서 알았다. 이곳에선 병이 그 사람을 대표했다. 나는 예의상 맞았다고 대답했다. 선원의 음식은 소금을 넣지 않아서 밍밍했다. 삶은 대추, 삶은 당근, 삶은 마, 물로 볶은 계란... 이곳에선 모든 걸 따뜻하게 먹는데 과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메뉴 중에는 끓여서 죽처럼 만든 말기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맛있었다. 식사가 끝날 즈음에는 다른 테이블에서 어떤

여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공황장애가 있어서 저러. 옆에서 민희가 속삭였다.

아침 식사 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수행실에서 원장 스님의 말씀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는 내용인 것 같았다. 원장 스님은 한국에 온 지 이십 년 가까이 되었다는데도 한국어 발음이 나뉘었다. 방으로 돌아가 내가 법문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불평하자 민희가 말했다.

“나도 절반만 알아들어. 그런데 원장 스님이 굉장히 고집이 센데 아시거든. 일부러 우리가 알 듯 말 듯 말씀을 어눌하게 하시는 거 같아. 대중이 못 알아듣는 절반 정도의 말은 우리의 무의식을 향하는 주문, 만트라인 거야.”

원장 스님에 대해 말하는 민희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했고, 뺨은 붉었다. 문학을 향한 나의 눈빛도 타인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고 터무니없이 보이는 걸까. 어쩌면 내가 계속 소설을 써온 것은 그 안에 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얀 위의 오솔길 같은 문장을 뽐뽐뽐 뽐으며, 내가 만든 먼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모른다. 나는 시진이 그 안에 살고 싶어 할만한 소설을 쓰고 싶었다. 그게 시진과의 관계를 영속시키는 방법이라 믿었다. k의 소설집을 펼칠 때, 나는 마치 아내의 불륜 현장을 덮치려는 남자처럼 괴로운 심정이었다. k가 구축한 세계는 유쾌하고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냉기가 물었다. 시진이 왜 k에게 빠져들었는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시진과 헤어진 후로 소설을 쓰지 않았다. 왜 소설을 써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다.

선원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식사 시간은 아침 6시, 정오, 저녁 6시다. 아침 식사 후엔 원장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후로는 호흡 명상, 기체조, 만트라(주문)외우기 등을 하루 종일 반복했다. 수행은 강제가 아니라서 방에서 쉬거나 밖에서 산책을 해도 되었다. 토요일에는 다같이 밤 프로젝트로 영화를 보고, 금요일에는 소모임으로 모여 독서 토론을 했다. 원장 스님이 추천한 책들은 대학 신입생 수준의 교양서로 심리학, 우주,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했다. 나는 원장 스님이 책을 고르는 안목이 높은 것에 감탄했다. 민희는 자기가 대학도 못갔는데 여기가 대학교 같아서 좋다고 했다.

내가 따를 수 없는 규칙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침 첫 오침을 마시는 일이 그랬다. 세면대에 놓인 컵에 내가 칫솔을 넣으니까 민희는 그거 오침 담는 컵이야, 라고 알려줬다.

“뭐?”

“아침마다 마시거든. 요로법은 암환자에게 필수야.”

나는 요로법이라는 걸 그렇게 알게 되었다.

민희와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은 자주 찾아왔다. 예를 들어 민희의 이런 말들.

“원장 스님은 에너지의 폭발체야. 그 몸 안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우주야.” “원장 스님이 있는 곳에선 일상이 고도의 상징을 띄는 만다라의 세계로 변해. 예를 들어 원장 스님이 불 한잔을 마시면, 그건 번뇌하는 인간을 위해 생명을 마신다는 뜻이야.”